6.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6. 한 장의 사진이 천마디 말보다 낫다

Hello, I'm Lee Jin-hyeong. This is a place where you can ascertain the current city status, major policies and projects, and information at a glance in real time by integrating all the data of Seoul! This is the place where the citizens of Seoul are the mayor! It's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안녕하세요. 이진형입니다. 서울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도시 현황, 주요 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곳! 서울 시민이 시장인 이 곳! 바로 디지털 시민시장실입니다.

Today, we will learn about the value of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by identifying each system and experiencing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o see why it is easily compared to a proverb like,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왜 이 같은 속담에 비유했는지 직접 시스템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이곳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Structure of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구조

From now on, let's take a look at the structure by comparing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o a house.

지금부터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집에 비유하여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front door of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will be the main screen. When you open the front door of your house, just like how you can then see the structure of your house, you can see various information of interest in this case, including Dulle-gil, park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visualization of the living population through the main screen.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현관은 바로 메인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집의 현관문을 열면 집안의 구조가 눈에 들어 오듯이 메인 화면을 통해 둘레길이라든지 공원, 국제협력, 생활인구 시각화 정보 등 다양한 관심 정보가 한눈에 펼쳐지게 됩니다.

Also, if you click on the real-time city status in the upper left corner of the main screen, the overall city situation such as traffic conditions, atmospheric conditions, water supply conditions, prices, and financial status, will be opened up like one room after another.

또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실시간 도시 현황을 클릭하게 되면 재난안전을 비롯해 교통상황, 대기상황, 상수도상황, 물가, 재정 현황 등 도시 상황이 마치 방 한 칸, 한 칸처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The second page is like a Sarang Bang, where you can gain candid insights into citizen feedback.

두 번째는 마치 사랑방 같은 역할로 바로 시민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And this is a space where 62 municipal administration indicators for each sector, an overview of 36 major projects for each sector, municipal administration contents by topic, commitment map, and informa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displayed. If you're curious about the broad contents of the living room, you can see it at a glance by clicking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그리고 이곳은 분야별로 62개의 시정 지표와 분야별 36개 주요 사업의 개요, 그리고 주제별 시정콘텐츠, 공약 지도, 국제 협력 관련 정보가 있는 공간인데요. 거실처럼 넓은 내용이 궁금할 땐 이렇게 시정현황을 클릭하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The fourth is a veranda, which is a resume of Seoul City. Here, you can see the status of major indicators in Seoul, global rankings, or foreign news reports, which is like a veranda because it connects both inside and outside.

네 번째는 베란다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서울시 이력서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주요 지표현황과 글로벌 순위, 또는 외신 보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데 마치 안과 밖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베란다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How to use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디지털 시민시장실 이용방법

Hello, my name is Yong-Hyun Cho, and I am a big data officer in Seoul. I'm going to demonstrate what I do in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by voice and moti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빅데이터 담당관인 조용현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디지털 시장실을 제가 음성과 모션으로 동작시키는 것들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From now, I will show you how to operate with motion. The mouse pointer has changed, and the mouse pointer is moving along with my hand.

지금부터 모션으로 동작시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의 포인터가 바뀌었고요, 제 손을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Let's select Jongno-gu for disaster safety. Let me select the detailed view. Let's select traffic information. Let's move the map. Let's select one case.

재난 안전에 종로구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교통정보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지도를 움직여보겠습니다. 사건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Let's select the ‘Home screen’, ‘Go to Home screen', ‘Won Soon, Owl Bus' and ‘It moves to Owl Bus transportation.' Let me select Bus. Let me select the icon.

‘초기화면’, ‘초기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원순씨, 올빼미 버스’ ‘교통 올빼미 버스로 이동합니다.’ 버스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Won Soon, Atmospheric Environment’ ‘It moves to Atmospheric Environment.‘ Let me select a video that predicts air pollution.

‘원순씨, 대기환경’ ‘대기환경으로 이동합니다.’ 대기오염 예측 영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Won Soon, Status of municipal administration’ ‘It moves to Municipal Administration Status.' Let me select the job performance of the status of municipal administration. Let me select the Seoul Corporate Start-up Index. Let me select a full-time worker.

‘원순씨, 시정현황’ ‘시정현황으로 이동합니다.’ 시정현황의 일자리 실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울 법인 창업 지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선택해보겠습니다.

'Won Soon, Documents for approval’ ‘It moves to documents for approval.' Select the future Seoul. Let me select for you to see the documents the Mayor has approved. Let me turn the page. ‘Home Screen’ ‘It moves to Home Screen.’

‘원순씨, 결재문서’ ‘결재문서로 이동합니다.’ 미래 서울을 선택해봅니다. 시장님이 결재한 문서를 볼 수 있게 선택해 봅니다. 페이지를 넘겨 봅니다. ‘초기화면’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Let me close the motion.

모션을 종료해보겠습니다.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provides vivid field information that can be viewed at a glance and judged from various angles, and quick situation judgments help improve situational response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이처럼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도시를 한눈에 보고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을 통한 업무지시로 빠른 상황 대응력과 행정 책임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As I said earlier,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shows that citizens are the mayor, and just as the proverb goes, ‘A picture is better than a thousand words.’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한 장의 사진이 천마디 말보다 낫다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라는 속담처럼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바로 시민이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a new hub in the smart city of Seoul. I hope this lecture has been a great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hank you.

스마트 도시 서울의 새로운 거점, 디지털 시민시장실. 이번 강의가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